

지역 소식통



김제시 성덕면, 이기선생
생가 환경정비 나서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형순)은 22일과 24일 총2차례에 걸쳐 대석마을 주민 및 노인일자리 어르신 23명과 함께 성덕면 유적지인 해학 이기 선생 생가를 찾아 제조작업, 쓰레기 수거, 주변청소 등 유적지 환경정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환경정비는 호국, 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이하여 어려운 시절 나라를 위해 목숨과 삶을 바치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관내 주민 및 이기선생 생가를 찾는 외부인에게 충효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한편 유적지를 찾는 이들에게는 쾌적한 주변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기선생 생가 진입로 300m를 아스콘으로 포장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설명회

완주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 교육 및 마을방송 시스템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자율방재단과 마을이장들을 비롯한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군청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설명회는 심폐소생술 등 자율방재단 응급처치 교육과 마을방송 시스템 운영을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로 재난발생시 주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완주군에서는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165개 마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내수면 양식업계 간담회

완주군이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 25일 이서면사무소에서 '내수면 양식업계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향어, 메기 등 주요 내수면 어종을 생산하는 양식업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내수면 어업 경영의 어려운 실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 이후에는 이서면의 양식업장 3개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며, 내수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가공 등 6차 산업과 연계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는 2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부서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는 '김제3.0 열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평선축제 수익 방안 논의

김제시, 열린 정책토론회 개최... 벽골제 사계절 관광지화 방안도

김제시는 2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부서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는 '김제3.0 열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처음 도입되어 5번째를 맞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평선축제 수익창출 방안'과 '벽골제 사계절 관광지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토론회 주제 선정배경은 김제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 5회 연속 선정되어 내년에 대표축제 해제 및 국비지원 감소로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과 축제 기간에 한정되어 관광객이 집중되는 벽골제를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할 시도로 출발했다.

김제시는 개최에 앞서 온라인 게시

판을 통해 직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이중 축제 입장권 판매나 체험료 징수 등은 타 지자체의 사례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올해 벽골제 주변으로 담장 설치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입장료 징수를 위한 도입시기와 방법에 대해 열린 토론이 벌어졌으며, 그 외에도 축제장 저수지에 유료 보트 체험 개설, 매년 100만원 이상이 찾는 축제의 위상을 활용한 스폰서십 강화, 축제 관련 상품 제작 판매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벽골제 하중도 활용방안을 주제로 했던 지난 4차 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벽골제 사계절 관광지와 방안

등을 활용한 질적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여러 방안들이 거론되었다.

주말을 이용한 전통 공연, 라이브 콘서트 등 상설 공연 개최, 한옥숙박, 전통차 시음 등 체험프로그램의 지속적 확대 운영, 벽골제 내 불거리 이외의 관광자원 확보 등의 의견이 나왔으며, 특히 관광지 운영에 민간참여를 고려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승복 부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활용하여 향후 벽골제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평선축제와 벽골제 관광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 도 좋은 콘텐츠를 많이 발굴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지평선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추진

2018년까지 금강권광역상수로 급수체계 변경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위·수탁 대행사업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이 최근 현장여건 애로 사항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2018년도 국비 8억을 추가 확보하여 총 사업비 48억원(국비)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김제 지평선일반산단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151억원을 들여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국비 48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오는 2018년까지 공업용수를 정수에서 침전수로 변경하고자 전주권광역상수도에서 금강권광역상수로 급수체계를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급수체계 변경 사업은 익산시 오산면에 위치한 금강권광역상수도 관로에서 연결하여 익산시 목천리에 위치한 김제 지평선일반산단단지 공업용수관로에 송수관로 4.8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8년 상반

기에 관로매설 완료 및 통수시험을 거친 후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업용수가 정수에서 침전수로 변경 공급됨에 따라 입주업체가 약 32%정도의 사용료를 절감, 수도요금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시는 "우리시의 재정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우리시에 보다 나은 산업인프라 구축으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에 의한 더 큰 김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애향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올해 91명에게 장학금 지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사장 박성일)은 25일 완주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장학생, 학부모, 재단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애향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올해는 총 91명에게 장학금이 지원됐다.

이중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4명의 지역 고등학교 출신에게 장학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또한 지역내 중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지역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17명은 3년간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됐다.

인재육성재단은 이같은 장학금 혜택이 지역고교 활성화 및 우수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장학생 대표로 소감발표를 하게 된 백선혜 학생(한별고 졸업, 이화여대 입학)은 "초·중·고 시절 방과후 중국어 수업은 고교 때 인재를 등을 통해 실력을 키운 결과,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며 "학업수행을 위해 도움을 준 완주군청에 감사함을 표하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듯이 원하는 꿈이 이뤄지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성일 이사장은 "지역내의 우수한 학생이 지역고교에 입학 및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대한 만큼, 오늘 전달되는 장학금이 완주군의 미래를 위한 힘찬 도약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지방세 체납 12억5000만원 징수

완주군이 2017년 이월된 지방세 체납 징수에 총력을 펼친 결과, 12억 5000만원(체납액의 38.5%)을 징수했다.

이는 행정자치부 연간 징수 권고 기준(37.8%)을 상반기에 이미 달성한 실적이다.

25일 군에 따르면 부군수를 총괄책임자로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13개팀, 180여명이 체납지방세 특별징수추진단을 합동징수 체제로 구성했다.

특히 매주 2회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한 새벽과 야간 출장을 실시해 자동차 779대를 영치 및 예고하고, 1억 99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재정관리과 전 직원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1억2700만원을 징수했고, 부동산 278건, 자동차 6,665건을 압류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은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권장하고 있다"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완주군의 지주재원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중한 자원이 만큼, 체납세납부에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정하고, 군·읍·면 합동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모악회, 월례회의 개최

김제시 기관·단체장 모임인 모악회(회장 이건식)가 25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중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의에서는 김제시 관내 기관·단체에서 사전자료로 준비한 주요 성과와 6월 행사 등에 대한 공유와 협조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특히 현충유물전시관 개관(5.15)에 따른 관람 안내, 김제시 공무원 농촌 일손돕기 일제출장 등 성과 보고에 이어 관내 기관·단체에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였으며, 김제소방서, 김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에서 개최한 주

요 행사에 대한 성과 공유의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예정된 제2주년 현충일 추념행사에 대해서도 보훈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조와 관심을 요청하였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월례회의를 통해 관내 기관·단체의 김제발전 위한 그간 보인 많은 성과에 박수를 보내며, 김제발전을 이끌어낼 화두(話頭)인 민간육성연구단지, 귀농귀촌 등 농업, 다문화·노인 등 복지, 김제사랑장학재단 등 교육 등에 대한 기관·단체의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